

# 완도 해양치유, 데이터로 효과를 입증한다!

##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차 연도 사업 추진 박차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위한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2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 사업은 ▲해양치유센터 통합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테라피실 배정·예약·이용·대기 관리 등 운영 자동화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착용 가능) 기기 및 생체 인식 키오스크 도입 등 치유객 건강 측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차 연도 사업은 '26년 3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해양치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해양치유 자원(해조류, 머드, 지역 특화 자원 등) 데이터, 이용객들의 건강 데이터, 심리·정서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량적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수집·축적된 데이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치유를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개발, 스포츠 재활 콘텐츠 개발

등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해양치유 효과를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 지표로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 치유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 (사)한국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수해 복구 대민 지원 '모범'

(사)한국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은 14일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회장 김미자) 회원 50여 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는 지난 8일 함평읍 일대 수해 피해 가정을 찾아 주택 정리, 가재 세척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어 12일에는 함평읍 장년리 애도막 농가 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에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묵묵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생활개선회의 모습은 주민에게 위로와 감동을 안겼다.



김미자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봉사 활동으로 생활개선회 특유의 이웃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복구에 동참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무안군, 무안읍 극한 호우 대책 수립 위한 특별점검회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무안읍 극한 호우 대책수립을 위한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산 군수 주재로 무안군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11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7일과 8월 3일

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강우량 현황과 원인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수원인 및 종합보고, 관련 실과소별 대책보고와 토론을 마치고, 보건소 인근 미목, 우성빌라 등 현장을 찾아 공동주택 차수막 설치 등 호우대

책 계획을 실질 점검했다. 김산 군수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긴급 예산 8억원을 투입 침수지역의 배수로 준설·보강·신설 사업 및 차수막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구례지역자활센터, 감사의 마음 담은 '사랑의 삼계탕'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정민)는 8월 9일 말복을 앞두고 농협전남본부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구례축협에서 삼계탕을 전달받았다. 이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기관인 구례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과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모든 참여자들에게 폭염으로 지친 지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마지막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최정범 구례축산업협동조합장은 "구례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자활을 위해 수고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후원과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나주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취약 시설 74곳 방역물품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관내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74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4일 어르신, 장애인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시설 내 집단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스크, 신속항원검사키트, 손 소독 티슈 등 필수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집단감염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실내 밀집도 상승과 냉방기 사용 증가로 환기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증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 장성군, 군민 눈 건강 지킨다... 안과 의료협약 체결

장성군이 13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센트럴윤길중안과'와 안질환 검사 및 수술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협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지역 순회 눈 검진 및 의료봉사 △의료취약주민 무료 진료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측에서는 모든 장성군민에게 진료·수술비 20~30% 감감 혜택을 적용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선 2월에도 '스타키보정기', '금강보정기'와 협약을 맺고 청력 손실이 있는 65세 이상 군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